

로컬리더

군산시, 노숙인·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예방 전수조사

군산시가 노숙인 및 장애인시설 내 폭행, 갈취,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생활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춰 노숙인 인터뷰 등이 이루어지는 첫 실태조사로 노숙인 대상으로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시작으로 시설 운영 및 환경 관련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노숙인시설 인권보호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소외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 조촌동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

군산시 조촌동(동장 진희병)이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조촌동 조경한마을협의체와 자원봉사자들은 부항하나로아파트에서 '주민 결의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날 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상담과 치매검진, 영정사진 촬영, 간식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쳤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는 최근 조촌동주민센터가 취약계층 일제조사 후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주민 밀착형 행정을 선보인 것이다.

진희병 조촌동장은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의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촌동은 지난 6월 20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 영등1동주민센터 복지통장 위촉장·문패 전달

익산시 영등1동주민센터는 25일 42명의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장과 문패를 전달했다.

주민센터 내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시작으로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영등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로 복지통장을 위촉하고 매월 1가구가 상 사각지대 주민발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42명의 복지통장은 저소득 가구 생활을 살펴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주민센터와 상시 연계하여 영등동 복지파수꾼으로 동 복지허브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통장의 집 때문에 문패를 부착해 이웃주민에게 복지통장의 집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도움을 청할 곳을 모르는 정보취약계층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영등동 이범용 동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복지통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동 행정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통장들이 맞춤형복지사업 추진에 동참하게 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영등동을 만드는 데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식품접객업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공포

은파호수공원 옥외영업 허용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 일원과 관광호텔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 앞으로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커피와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25일 시는 군산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일원과 관광호텔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의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군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례에는 옥외영업 적용대상, 영업의 신고, 시설기준을 비롯한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관광호텔 11개소와 음식점 및 카페 15개소는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을 가능하게 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내지 지상 공터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 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오숙자 군산시 식품위생과장은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개별 방문해 적극 홍보하는 등 은파호수공원 옥외영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행정규제를 풀어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과 관광호텔 내 옥외영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식품위생과(☎63-454-3420)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문정근 기자

문동신 군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위해 총력

국회 예결위·상임위 위원들 만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 증액 협조 요청

문동신 군산시장이 25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및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2017년 군산시 국가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이 8,348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788억 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9,136억원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현재 정부예산은 지난 24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5일부터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예결위는 정책질의 등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방한에서 문 시장은 김관영 의원을 만나 군산시 국가예산과 국회단체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주요사업별 필요성 등 논리강화와 삭감 우려 사업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춘석 의원, 김광수 의원과 만나 남북2축 등 새만금관련 사업과 과소보형 사업의 예산증액을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중희 의원과도

만나 신시도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계획비 3억 원의 예산변경을 요청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긴축정책 및 SOC예산 축소방식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지막 국회 심의단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도 및 지역정차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 지방자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익산시 김진성(사진) 복지청소년과장 이 오는 27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김진성 과장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익산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끊임없는 세원 발굴과 공영과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에 전력을 다해 온 결과 2014년부터 9.2% 증가한 2,303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징수율 95.7%의 220억원 을 징수하는 등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다.

특히 어르신 입산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 발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

활동 운영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한 점을 인정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대상으로 선별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전라북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도 익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김진성 과장은 "이번 수상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제 4회 지방자치 박람회는 27일~30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BEXCO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시·도 우수사례 및 향토지원, 마을기업 상품전시, 판매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 어양동 희망동행, 어려운 이웃 꾸러미 전달

익산시 어양동 희망동행(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25일 어양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할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저소득층 꾸러미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 북공동 모금회 민간협력 배분사업으로 지난 9월 민간협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600만원의 사업비 중 특화사업비 285만원으로 진행되었다.

꾸러미세트는 5만원 상당으로 잡곡, 미역, 식용유 등 식료품과 비누, 치약, 샴푸 등 생필품으로 만들어졌으며, 복지통장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58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방은규 민간위원장은 "이번 저소득층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 행복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진 어양동장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연계에 힘써주시는 협의체위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 청암산구슬피 전국등산축제 개최 준비 한창

군산호수 및 청암산 일원에서 제8회 청암산 구슬피 전국등산축제가 다음 달 5일 개최된다.

청암산 구슬피 전국등산축제는 육산면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육산면자생단체가 후원하는 지역 축제로 오색단풍과 어우러진 군산호수 및 청암산 일원에서 열린다.

육산·당북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토끼와 거북이 등산행사, 축하공연, 푸짐한 경품추첨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보물찾기, 사냥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1년 뒤에 전달되는 청암산 느린 우체통과 토끼와 거북이 조형물 및 나팔꽃과 국화로 어우러진 포토존 등 어린이는 물론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무대공연을 마련하여 신명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문태 육산면장은 "육산면은 청암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명품 주거지로서, 사업비 72억 원의 청암산 에코라운드사업과 50억 원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청암산을 소재로 한 각종 사업과 축제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청암산구슬피 전국등산축제가 전국 행사인 만큼 군산을 홍보하고 육산면을 알리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원광대, 개교 70주년 기념 발전기금展 개최

31일까지 교내 송산기념관 1층 LINC미술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개교70주년 기념 발전기금展을 24일부터 31일까지 교내 송산기념관 1층 LINC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문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자기와 그림 공예품 등 총 171점이 출품됐다.

특히 171점은 원광대 개교70주년과 원광대 개교 70주년에 1을 더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 전시회 개최 취지를 더욱 뜻깊게 하고 있으며, 24일 오후 원광학원 신명국이 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동문 및 학교구성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전시회를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김도중 총장은 "오늘 전시회 테마는 발전기금 운동으로 이번 전시회가 새로운 도약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아시아 중심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의 판매 수익금은 모두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될 예정이며, 발전기금展의 주축을 이룬 원광대 미술대학은 1970년 미술교육과로 시작해 1983년 단과대학 인가 후 46년여 동안 총 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한국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경찰, 무기산 불법 보관행위 집중 점검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김 안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공업용 무기산을 은밀히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업용 무기산은 살충제 등 농약원료 또는 소독, 복제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김 안식업자들은 공업용 무기산을 김 안식장에서 파래와 잡채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해 불합법으로 보관·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안식업자들이 공업용무기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체에 무해한 무기산(합법)보다 저렴한 비용과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뛰어나고, 대량으로 분류된 공업용 무기산을 은밀히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업용 무기산은 살충제 등 농약원료 또는 소독, 복제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김 안식업자들은 공업용 무기산을 김 안식장에서 파래와 잡채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해 불합법으로 보관·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안식업자들이 공업용무기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체에 무해한 무기산(합법)보다 저렴한 비용과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뛰어나고, 대량으로 분류된 공업용 무기산을 은밀히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안식장이 다가올 때 공업용 무기산 불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기산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업용 무기산(염산) 사용은 김안식장의 병충해와 잡채 등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지만, 해양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육산 김 불신 증대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민 요인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해수청, 해양문화기행 행사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종민)은 문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청소년과 문인이 함께 떠나는 해양문화기행' 행사를 오늘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평소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은 벽지학교 청소년과 전북지역 문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해양 문화를 이해하고, 해양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양문화기행은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문인과 장수 산서중학교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람선을 타고 고군산군도를 돌아보면서 섬이행의 유래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예정이다. 특히 중간 기착지인 선유도에서 '작은 바다 문화콘서트'를 열어 해양 문화 강연, 바다 시 낭송, 예술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군산=문정근 기자